



광주일보 자매지 월간 '예향' 창간 40주년을 자축하는 기념 전시회 '40년의 여정-함께 걸 어갈 길'이 22일 복합문화공간 '어반브룩'에서 열렸다. 기념식과 전시회 관람, 리더스 아카데미 '가을음악회' 현장을 화보로 만나본다.

/최현배 기자 choi@  
/김진수 기자 jeans@



김여송 광주일보 회장, 김영록 전남지사,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 내빈들이 22일 광주시 남구 어반브룩 연회장에서 열린 예향 창간 40주년 기념 '예향 아카이브 & 남도오딧세이' 행사에 참석해 예향 40주년 발자취를 살펴보고 있다.

# 40년 밝혀온 남도문화... 행복한 동행 계속된다



예향 창간 40주년 기념 행사 참석자들이 예향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.



예향 40주년 기념행사 후 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씨가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.



김여송 광주일보 회장(오른쪽)이 예향 창간 40주년 기념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.



김여송 광주일보 회장(왼쪽)이 조동수 전 광주일보 주필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.

“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.”

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 
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.

## 조선의 시인 문예지 '시꽃피다' 창간



### 조선의 시인

농민신문신춘문에 당선, 기독교신문에 당선, '미선21' 신춘문에 당선,  
상상인 작품상, 송순문학상, 김만중문학상, 거제문학상,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.  
『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』, 『빛을 소환하다』, 『꽃 향기의 밀서』, 『꽃으로 오는 소리』 등 발간.  
〈시꽃피다〉 광주 시창작 강사, 〈시꽃피다〉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,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,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

